

완도군, 4차산업 연계 군정운영 속도 낸다

신우철 군수, 직원 대상 특강 “빅데이터 관광트렌드 분석 등 인공지능기술 활용 강화해야”

신우철 완도군수가 전 직원을 대상 '4차 산업과 완도 미래'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미래 핵심 기술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특강으로 주민 자치 기능 활성화, 기후변화 대응 등 ESG 경영에 나서줄것을 당부했다.

14일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 8~10일 신우철 군수가 완도생활문화센터에서 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4차 산업 혁명과 완도군의 미래'라는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신 군수는 4차산업 혁명 핵심 기술인 빅 데이터와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메타버스(meta verse), 사물인

터넷(IOT), 재생 에너지 등 미래 핵심 기술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높이고 군 핵심 사업에 연계시키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마련했다.

신 군수는 해양치유산업, 해양바이오 산업, 웰니스 관광, 국립난대수목원,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 대규모 SOC 사업 등 군 역점과 4차 산업 기술 연계 사례 및 적용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교육과 복지 서비스 추진, 가상현실을 보전, 안전 분야에 접목하고 빅 데이터를 통한 기후 변화 및 관광 분석, 농업, 인명 구조에 드론 활용, 스마트 팜과 스마트 양식 등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양·산림·농수축산 분야의 친환경 생산, 기후변화 대응·관리, 인구 감소 소멸 위기 대응, 사회적 약자 보호, 기업과 지역의 상생 협력, 주민 자치 기능 활성화 등 ESG 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신우철 완도군수가 '4차 산업과 완도 미래'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완도군 제공

도모해야 한다는 점도 피력했다.

신 군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가속화되고 일상생활 속에서 보편화되는 추세”라며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완도의 미래 발전을 위해 군정 곳곳에 4차 산업 혁명 기술이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

라”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드론을 이용한 적조 예찰, 빅 데이터를 이용한 관광 트렌드 분석,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스마트 팜 등 군 사업 곳곳 4차 산업 핵심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완도=최경철 기자

17일 ‘물맛이 치유의 숲’ 개장 무안군, 식목일 행사도

무안군은 오는 17일 무안읍 ‘물맛이 치유의 숲’에서 개장식과 함께 제78회 식목일 행사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무안 물맛이 치유의 숲은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25ha 부지에 국비를 포함해 80억원을 투입, 산림치유센터와 치유숲길, 치유정원 등이 조성됐다.

치유의 숲 내에 건립된 산림치유센터에 건강 측정실, 심심 이완실, 다목적 치유실 등이 마련돼 탐방객들의 휴식과 건강 회복을 담당할 예정이다.

개장식과 함께 진행되는 식목일 행사에서 치유의 숲 주변에 진달래 4320그루를 식재하고 참여자에게는 비파나무 650그루, 동백나무 300그루 등을 나눠준다.

올해는 녹색자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무장애 나눔길’에 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해 대곡저수지 주변에 산책로 2km를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2025년까지 치유의 숲 주변에 숲속 야영장을 추가 조성해 물맛이 골을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복합 휴양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무안=김행언 기자

김산업 진흥구역 공모 선정 신안군, 총 50억 지원 혜택

신안군은 해양수산부에서 공모한 ‘제1차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은 총 50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김산업 성장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곳을 진흥구역으로 지정 ‘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신안군은 지난 1월 북부권김생산자협의회, (주)신안천사김과 미국 수출김 전용단지 지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북부권 김 양식장 1118ha를 공모사업 지구로 신청했다.

이 일대를 친환경 유기인증 단지로 조성해 국·내외 인증을 통한 품질향상, 친환경 기자재 보급, 친환경 유기인증 취득 지원, 김 가공공장 품질 개선 등에 나선다. 신안=홍일갑 기자

25일 ‘청년셀러 플리마켓’ 무안군, 오룡공원 일원

무안군은 오는 25일 오전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로읍 오룡공원에서 청년셀러 플리마켓 ‘마켓 올래(來)’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무안군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지금까지 판매자 100여 팀을 모집했다.

오룡공원 놀이터에서부터 참나무숲 공원 입구까지 400m 산책로를 걸으면서 음식, 생활, 패션, 미용, 체험 부스 등을 관람할 수 있다.

무안로컬푸드사회적협동조합과 무안 플랫폼사업단에서도 참여해 군 향토 농특산물로 지역 먹거리 존을 운영한다.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을 위해 비눗방울 쇼, 풍선아트, 페이스페인팅 등 홍보 행사도 진행한다.

무안군은 청년 소상공인들의 판매행사 제공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정기적으로 플리마켓을 운영할 예정이다. 무안=김행언 기자

신북면서 나무심기 행사 영암군, 탄소중립 동참 권유

영암군이 제78회 식목일을 앞두고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신북면 용산리 일대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군민들과 군청 임직원들은 산불에 강한 동백나무 2000본을 5ha에 식재했다.

참가자들에게는 왕대추나무, 자두, 체리나무 등 유실수 1500본을 나누어주며 집 주변 자투리 땅을 활용한 탄소중립 실현에 동참토록 권유했다.

영암군에 따르면 2023년 조림사업은 △산불예방 및 산림재해 방지를 위한 동백, 가시 등 20ha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위한 단풍, 산벚나무 등 7ha △목재생산량 조성을 위한 편백 등 41ha △돈이 되는 특용수 조성을 위한 황칠, 엄나무 등 4ha 등 4개 사업을 추진, 총 72ha를 식재할 계획이다. 영암=이병영 기자



지난 10일 영암군이 제78회 식목일을 기념해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영암군 제공

해남군, 1억이상 고소득농가 753명... 3년 연속 도내 최다

축산·가공유통분야 증가세 로컬푸드 매장 활성화 비결

해남군에서 1억원 이상 고소득농가가 753명으로 3년 연속 도내 최다 수치를 보이고 있다.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을 통한 가공 유통 농가 활성화가 고소득 농가 유지 비결로 풀이된다.

14일 해남군에 따르면 1억원 이상 고소득 농가가 전남도 내에서 가장 많은 753명으로 나타났다.

해남군은 전남도 고소득 농가 조사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가운데 2018

년 522명, 2019년 548명, 2020년 604명, 2021년 720명, 2022년 753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품목별로는 배 등 식량작물이 339농가로 가장 많고 축산 209농가, 채소 112농가, 유통가공 75농가, 특용과 과수, 기타 작목에서 18농가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비해 축산 20농가, 가공유통 21농가가 추가되면서 고소득 농업인 증가를 주도했다.

한우 사육농가 증가와 규모 확대, 수도작 등 복합영농 증가에 따른 축산분야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으며 해남미소 및 로

컬푸드 직매장 매출을 통한 가공 유통 농가의 활성화가 고소득 농가 증가를 이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해남군은 전국 최대 농지면적과 친환경 인증 농산물 1위 지역으로 청정 환경을 바탕으로 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유통 강화로 농업의 고소득 산업화를 이끌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스마트팜 등 고부가 가치 미래농업 육성과 유기농 중심의 품목별 다양화 추진, 가공유통 판매 활성화를 통해 부가농존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강진군 ‘전지훈련 메카’ 재확인... 을 3200명 방문

1~3월... 연인원 환산 3만명 “지역 경제효과 25억원 이상”

강진군이 겨울철 전지훈련 메카로서의 명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14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 초까지 8개 종목 3200여 명의 선수단이 강진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1월 초부터 중등부 축구 16팀, 배드민턴 초·중·고등부 33팀, 탁구 80팀, 배구 8

팀, 야구 8팀, 볼링 15팀, 테니스 10팀, 사이클 50팀 등 8개 종목 총 2700여명이 강진을 찾았다.

연인원으로 따지면 3만여명에 달한다. 경제효과는 25억5000만원에 이른다.

전남발전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전지훈련팀 선수 1인당 하루 8만 5000원의 직·간접 경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에는 전국 단위 스포츠대회도 열렸다.

‘제70회 3·1절 기념 전국투어 도로사

이클대회’ 및 ‘2023년 마스터즈 사이클 강진투어’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강진군 일원에서 펼쳐졌다.

강진원 군수는 “전지훈련과 스포츠대회 개최가 지역경제에 끼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올해 하계 훈련은 물론, 연중 전지훈련 팀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강진군에는 사이클, 축구, 탁구 등 9개 종목에 연인원 3만3000명의 전지훈련팀이 방문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해남군, 군민의 상 유공자 접수

해남군은 오는 5월1일 제50회 해남군민의 날을 맞아 ‘해남군민의 상’ 유공자와 군정의 각 분야에서 기여한 군정발전 유공자 표창 대상자를 추천받겠다고 14일 밝혔다.

해남군민의 상은 지역발전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군민 복지증진에 앞장서 해남군의 발전에 기여하거나 문화예술의 창달, 군민화합 등 군민의 표상이 될 만한 수범을 보인 개인 또는 단체를 선발한다.

군정발전 유공자는 당 분야에서 장기간 공적을 쌓아 타의 귀감이 되는 개인 또는 군정 시책에 적극 호응하여 군민소득 증대 등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다.

올해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부 등을 통해 군민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지역사랑후원 분야도 추천받을 예정이다.

수상자는 군민의 상 2인 이내, 군정발전 유공자 30인 내외로 제50회 해남군민의 날 기념식 행사에 수여할 예정이다. 추천기한은 오는 24일까지이고 추천자는 읍·면장 또는 유관기관 단체장이다.

군청 총무과(061-530-5236)나 읍·면 총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해남=전연수 기자